

‘슈퍼스타7명’ BTS, 아직 안 변했네

RM·뷔·지민·정국, 이달 전역...슈가는 소집해제
“K-팝에 대한 관심 환기...‘낙수 효과’ 있을 듯”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 아직 여태 안 변했네 /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즈 온’ 中)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이달 군 복무를 모두 마치고 내일을 또 이어간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RM(김남준)·뷔(김태형)가 오는 10일 전역한다. 지민·정국은 다음날인 11일 제대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민윤기)는 21일 소집 해제된다.

이미 팀의 말형인 진(김석진) 그리고 제이홉은 지난해 전역한 뒤 활발한 솔로 활동 중이다.

이들이 모두 군복을 벗는다고 바로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이브(HYBE) 이재상 대표이사(CEO)는 지난 3월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탄소년단 컴백과 관련 “회사도 톱 티어 작곡가 분들과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아티스트 본인의 속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가수들은 곡 작업을 하고 앨범을 발매한 뒤 투어를 진행하는데, 방탄소년단은 이미 각자 이미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 도약한만큼 비전과 넥스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며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이 오는 28~2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첫 단독 콘서트 투어 ‘런석진_EP투어(RUNSEOKJIN_EP.TOUR)’를 여름에 도는 등 솔로 활동을 소화 중이다.

다른 멤버들도 전역 이후 각자 스케줄이 예정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제대로 된 단체 활동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제이홉이 오는 13~14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제이홉 투어 ‘홉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j-hope Tour ‘HOPE ON THE STAGE’ FINAL)’과 이 공연장 주변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데뷔 12주년 기념 ‘2025 BTS 페스타’에서 멤버들의 깜짝 이벤트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복기 동안 일곱 명의 슈퍼스타가 생겼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6월 발매한 앤솔로지 음반 ‘프루프(Proof)’ 활동 이후 ‘단체 활

동 군복기’에 접어들었다. 이전 마지막 단체 콘서트는 같은 해 10월 부산에서 연 ‘Yet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이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현명했던 지점은 이 기간 멤버들의 순차적인 솔로 활동으로 팬덤 ‘아미’와 심리적 거리를 줄였다는 데 있다.

임희윤 대중음악 평론가(한국대중음악상(한대음) 선정위원)는 “군복기 동안 솔로 앨범이나 자체 콘텐츠를 꾸준히 발표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백은 물리적 부재에 비해 적었다”면서 “따라서 팬들이 꾸준히 방탄소년단이란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짚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춘 특별한 프 로덕션을 통해 솔로로서도 존재감을 각인했다. 슈퍼스타 한 팀이 이제 일곱 명의 슈퍼스타가 모인 어벤저스가 된 셈이다.

차트 성적만 봐도, 확인 가능하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솔로로 세계 팝 차트의 중심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대거 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자체 첫 영어곡인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핫100’에서 한국 아티스트 작품 최초 1위를 기록했다. 이후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을 통해 빌보드 차트 최초 한국어 노래 1위도 차지했다. 이후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제이홉 데뷰와 협업한 ‘새비지 러브(Savage Love)(Laxed - Siren Beat)’,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까지 통산 여섯 곡을 ‘핫 100’에 정상에 올렸다.

지민과 정국은 각각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와 미국 래퍼 라토(Latto)가 피쳐링한 ‘세븐(Seven)’으로 솔로로서 해당 차트 1위를 거머쥐었다.

정국은 ‘세븐’을 비롯 일곱 곡, 제이홉은 ‘모나리자’ 등 일곱 곡, 지민은 ‘라이크 크레이지’ 비롯 여섯 곡, 솔로 활동명 어거스트 디를 내세웠던 슈가는 ‘대취타’를 비롯 네 곡, 뷔는 ‘러브 미 어게인’을 비롯 여섯 곡, 진은 ‘디 에스트로트’ 등 세 곡, RM은 ‘와일드 플라워’ 등 두 곡 등을 ‘핫100’에 올렸다.

성적보다 중요한 건 단체 활동 공백기 동안 멤버들이 솔로 뮤지션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RM은 인디 뮤지션들과 적극 협업으로 K-팝을 비롯 국내에 드문 얼터너티브 장르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정국은 자체 프로듀싱보다 완성도 높은 곡을 발굴해내는 안목을 갖고 ‘퍼포머 역량’에 집중하며 글로벌

팝스타 반열에 올랐다. 지민은 ‘후로 ‘핫100’에서 K팝 최장 진입기록인 33주를 세우는 등 마니아와 대중을 모두 사로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슈가는 어거스트 디의 연차 시리즈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프로듀서로서 힘을 보여줬다. 제이홉은 스트리트 댄서로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음반, 공연의 긴밀한 유기성을 통해 음악의 내력과 외력의 단단한 합을 빚어냈다. 뷔는 팝 R&B, 재즈 등 자신이 평소 좋아한 음악의 요소를 적극 안으며 K-팝 아이돌로서는 들려주기 힘든 음악을 밀고 나가는 폭스를 증명했다. 진은 다양한 록 장르를 섭렵하며 이 음악에 대한 마음이 흑심이 아닌 진심을 증명했다.

“BTS 예술혁명 :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의 저자인 이지영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 대해 “그들 활동을 통해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각자의 음악적 욕망들에 충실하게 솔로 활동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성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솔로 활동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활동과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음악 및 활동이 있다는 것을 예전보다 더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예상했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이뤄질 그룹 활동은 이전보다 음악적으로 또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성숙한 활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혜림 콘텐츠 기획자(한대음 선정위원)도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의 솔로 활동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고, 이제 완전체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개별의 정체성’이 집합된 이들의 컴백은 방탄소년단이라는 브랜드의 진화를 확인할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팬덤의 기대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새로운 서사의 시작에 있다”고 짚었다.

새로운 서사를 시작한 멤버들이 팀을 위해 뭉칠 때 날 시너지는 쉽게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멤버들의 변하지 않은 팀과 아미에 대한 애정 역시 그 힘에 막강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지민은 최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앨범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 나의 30대는 어떤 여정이 될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무대하고 싶다”고 적기도 했다.

이지영 교수는 “생명이 짧은 K-팝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아이돌 그룹 활동은 마치 솔로 활동이나 다른 연예계 활동을 위한 전 단계처럼 활용되는 현실이다. 그와 달리 방탄소년단의 경우 뮤지션으로서 생명을 이어나가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K-팝 아이돌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음반 판매량 감소 등 위기로 속에서도 해외 투어 등으로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K-팝 산업에 천군만마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들의 음반 발매, 투어만으로도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1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 인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K-팝에 대한 관심이 환기돼 적하 효과(trickle-down) 역시 기대된다.

조혜림 기획자는 “방탄소년단의 복귀는 단순한 아티스트 컴백이 아닌 K-팝 산업 전체의 리셋과도 같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체된 K-팝의 내러티브에 다시 불을 붙일 사건이며, 음반·투어·콘텐츠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K-팝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짚었다.



아이들, 데뷔 8년 만에 日 아레나 투어

그룹 ‘아이들(i-dle)’이 데뷔 8년 만에 첫 일본 아레나 투어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들은 오는 10월 4~5일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8~19일 효고현 고베에 위치한 지라이온 아레나 고베에서 2개 도시 총 4회차 콘서트를 연다. 아이들은 앞서 지난해 ‘2024 아이들 월드 투어 [아이들] 인 도쿄’로 2만5000여 명의 관객들과 만났다.

큐브는 “특히 이전 공연보다 수용인원이 대

폭 늘어난 대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해 현지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은 일본 투어에 앞서 오는 8월 열리는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서머 소닉 2025(SUMMER SONIC 2025)’ 메인 무대인 마린 스테이지에 오른다.

아이들은 최근 미니 8집 ‘위 아(We are)’로 컴백한 후 타이틀곡 ‘굿 싱(Good Thing)’으로 활동 중이다.

뉴시스

‘하이파이브’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영화 ‘하이파이브’가 개봉 첫날 톱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이파이브’는 30일 7만7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차지했다.

‘하이파이브’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장기를 이식받은 뒤 각기 다른 초능력을 갖게 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히어로물이다.

이재민, 안재홍, 유아인, 라미란, 김희원, 신구, 박진영, 오정세 등의 연기력과 코미디 액션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시사회 후 호평을 받았다.

2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6만 8695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개봉 14일 만에 2위로 누적 관객수는 217만208명이다. 유해진, 이재훈 주연의 ‘소주전쟁’은 4만 6590명의 관객을 모아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디즈니 실사 영화 ‘릴로 앤 스티치’(7555명), 5위 라인어 쿨러 감독의 ‘씨네스: 최인물’(4469명), 6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프로젝트 세카이: 부시진 세카이와 전해지지 않는 미쿠의 노래’(3966명) 순이다.

“456번 아직도 사람 민나”...오징어게임3

456억원을 건 마지막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다.

넷플릭스는 1일 오징어 게임 시즌3 메인 예고편과 2차 보드스티를 공개했다. 예고편은 “뚝뚝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라는 동요로 시작하고, 영화가 게임장에 다시 등장하자 참가자들은 겁에 질려 했다. ‘성기훈(이정재)’은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 준거야?”라며 분노. 반란 실패 후 친구 ‘박정배(이서환)’를 잃고 혼자 살아 돌아온 죄책감이 느껴졌다.

게임 총괄자 ‘프론트맨(이병헌)’이 참가자 ‘오영일(이병헌)’에서 돌아와 기훈을 지켜보는 모습이 긴장감을 높였다. ‘장금자(강애심)’는 “제발 게임을 그만하게 해달라”며 울부짖고, ‘이명기(임시완)’는 ‘김준희(조유리)’에게 “어떡 하겠다는 건데, 여기 앉아서 죽겠다는 거야?”라며 다그쳤다. 기훈은 456번을 단 채 정장을 입고 들어섰고, 프론트맨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냈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민나”라고 물었다.

스티븐은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참가자 모습을 담았다. 기훈은 누군가를 날카롭게 바라봤고, 프론트맨은 132번을 단 정장을 입고 있다. 명기와 금자, 준희를 비롯해 ‘강대호(강하늘)’, ‘조현주(박성훈)’, ‘박용식(양동근)’, ‘남규(노재원)’ 등 생존한 참가자도 시선을 끌었다.



‘박경석(이진욱)’은 배를 움켜쥐고 채 핑크가드와 마주하고 있다. 반란이 제압 당하는 상황에서 총을 맞아 생사 여부가 공금증을 샀다. 경찰 ‘황준호(위하준)’는 ‘OΔO’가 그려진 게임 초대장을 보고, 오징어 게임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강노영(박규영)’은 핑크가드 가면을 벗어던지고 총을 겨누고 있다.

오징어 게임3는 다시 참가한 게임에서 친구를 잃은 ‘성기훈(이정재)’과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숨어든 ‘프론트맨(이병헌)’, 게임에서 살아남은 참가자의 마지막 운명을 그린다.

박하선 “강심장”서 좋아서 ‘하이킥3’ 캐스팅...강호동 덕분

배우 박하선이 강호동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야는 형님’에는 ‘이혼속려캠프’의 배우 박하선, 진태현과 변호사 박민철, 양나래가 출연했다.

이날 박하선은 강호동에 대해 “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박하선은 “옛날에 ‘강심장’을 8~9시간 찍지 않나. 너무 피곤해서 조금 졸았는데, 강호동이 그걸 살려줘서 ‘하이킥3’에 캐스팅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감독님이 ‘하이킥’ 신세계 씨 역에서 나를 노안이라고 부르셨다”며 “그런데 ‘강심장’을 보고 ‘재 재 재’에, 다시 데려와 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 덕분에 집도 사고 차도 사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김희철은 이수근에게 “수근이 형은 ‘1박 2일’때 피곤하다고 졸면 어떻게 됐나”고 물었다.

이수근은 “눈을 감는 순간 다시는 눈을 못 뜬다. 호랑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자나”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진태현도 강호동의 미담을 공개했다. 진태



현은 “전생연분”을 하고 몇 년 뒤 ‘야심만만’을 했다”며 “그때 호동이 세트장 밖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태현아. 너 잘될 거야’라고 응원해줬다”고 밝혔다.